

<제38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2018년 10월 26일(금)

(재)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사무소 세미나실



2 0 1 8

호 서 고 고 학 회 2 0 주 년

호서지역 문화유적

- 발굴성과



호서고고학회
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

<제38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2018년 10월 26일(금)

(재)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사무소 세미나실

2 0 1 8

호 서 고 고 학 회 2 0 주 년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서고고학회
The hoseo Archaeological Society

제 38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일정 및 주요내용

일시_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_ (재)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사무소 세미나실

접 수 09:30~			
식 전 행사			사회 오준혁(중앙문화재연구원)
개 회 사	10:20~10:30		이홍중(호서고고학회장)
시 상 식		2018년 우수논문상	
기조강연 10:30~12:00			
기조강연1	10:30~11:00	호서고고학회 20년을 돌아보며	조상기(중앙문화재연구원)
기조강연2	11:00~11:30	湖西地域 先史考古學: 최근 20년의 발자취	김범철(충북대학교)
기조강연3	11:30~12:00	호서고고학 20년, 역사고고학	박순발(충남대학교)
점심시간 12:00~13:10			
유적발표 13:10~17:00			
발 표 1	13:10~13:30	대전 신탄진동 구석기 유적	장형길(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발 표 2	13:30~13:50	공주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부지 내 유적	권승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발 표 3	13:50~14:10	예산 사리(548-2번지) 발견신고(고분) 지역 내 유적	정봉구(동방문화재연구원)
발 표 4	14:10~14:30	진천 삼덕리(789-1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부지 내 유적	문수균(미래문화재연구원)
발 표 5	14:30~14:50	아산 공수리 유적	심재웅(기호문화재연구원)
발 표 6	14:50~15:10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전혁기(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휴 식 15:10~15:20			
발 표 7	15:20~15:40	진천 송두리·가산리 유적	이현민(중앙문화재연구원)
발 표 8	15:40~16:00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김화정(호서문화유산연구원)
발 표 9	16:00~16:20	태안 당암포해역 수중발굴조사	양기홍(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 표 10	16:20~16:40	서천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양수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발 표 11	16:40~17:00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김미현·오정영(한국문화재단)
장내정리 17:00~17:10			
정기총회 17:10~17:40			
폐 회 17:40~17:50			
만 찬 18:00~			

기/조/강/연

강연 01 조상기 (중앙문화재연구원)	
호서고고학회 20년을 돌아보며	017
강연 02 김범철 (충북대학교)	
湖西地域 先史考古學: 최근 20년의 발자취	023
강연 03 박순발 (충남대학교)	
호서고고학 20년, 역사고고학	041

유/적/발/표

발표 01 장형길 · 안주현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대전 신탄진동 구석기 유적	057
발표 02 권승희 (금강문화유산연구원)	
공주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부지 내 유적	065
발표 03 정봉구 · 박종진 · 신은지 (동방문화재연구원)	
예산 사리(548-2번지) 발견신고(고분) 지역 내 유적 발굴조사	072
발표 04 문수균 (미래문화재연구원)	
진천 삼덕리(789-1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부지 내 유적	081
발표 05 심재웅 (기호문화재연구원)	
아산 공수리 유적	088
발표 06 정춘택 · 전혁기 · 김효진 · 송기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096
발표 07 이현민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천 송두리 · 가산리 유적	103
발표 08 소동영 · 박진우 · 김화정 · 박상현 · 서문영 · 신지향 · 윤소라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110
발표 09 양기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당암포해역 수중발굴조사	119
발표 10 이호경 · 양수연 · 권윤아 · 이건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서천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125
발표 11 정훈진 · 김미현 · 오정영 · 최성수 (한국문화재단)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133



지/역/별/유/적

유적 01 이창욱 · 이진호 · 정홍선 · 김경훈 (한국문화재단)	
공주 반죽동 121-7번지 유적	143
유적 02 정훈진 · 허병주 · 최민석 · 박구영 (한국문화재단)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150
유적 03 피영훈 (미래문화재단연구원)	
공주 반죽동(281-5번지)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156
유적 04 조원창 · 박연서 · 임재수 (한얼문화유산연구원)	
공주 반죽동197-4번지 유적	161
유적 05 이기봉 (누리고고학연구소)	
공주 수춘리(산16-9번지) 유적	171
유적 06 최병주 · 김가영 · 이종찬 (백제문화재단연구원)	
금산 보석사내 적목당 이전 및 문간채 복원부지 발굴조사	178
유적 07 안성민 · 변지현 (충청문화재단연구원)	
논산 가야곡2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185
유적 08 강모영 (동방문화재단연구원)	
논산 충곡리(311-5번지 일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191
유적 09 강모영 (동방문화재단연구원)	
당진 성상리(799-3번지) 면천읍성 저잣거리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200
유적 10 김상록 (가경고고학연구소)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발굴조사	207
유적 11 박연서 · 진희경 (한얼문화유산연구원)	
당진 수청지구 부지 내 유적	213

유적 12 이의지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대전 계족산성 제8건물지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219
유적 13 이인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대전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	227
유적 14 이동욱 (세종문화재연구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내 유적	234
유적 15 박대순 (가경고고학연구소)	
대전 도안 갑천지구조성사업 부지 내 발굴조사	243
유적 16 장석근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 신일동 유적	250
유적 17 이창욱·이진호·김경훈·김방호 (한국문화재단)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257
유적 18 조동식 (누리고고학연구소)	
보령 신송리 유적	263
유적 19 이영희 (백제문화재연구원)	
보령 웅천 두룡리 산136-2번지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유적	270
유적 20 박성규 (동방문화재연구원)	
보령 충청수영성(남벽, 남문지 주변) 유적	282
유적 21 박상현 (호서문화유산연구원)	
보은 대원지구 유적	288
유적 22 한정희·정춘택·전혁기·김효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보은 범주사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93

지/역/별/유/적

유적 23 피영훈 (한국문화재단) 보은 병원리(246-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99
유적 24 정훈진 · 허병주 · 전은정 · 최민석 (한국문화재단) 부여 가담리 94-7번지 유적(2018-호서고고학회)	303
유적 25 정훈진 · 김미현 · 오정영 · 박구영 (한국문화재단) 부여 동남리 235번지 유적	308
유적 26 정훈진 · 허병주 · 전은정 · 최민석 (한국문화재단) 부여 동남리 259-11번지 유적	314
유적 27 정훈진 · 허병주 · 전은정 · 최민석 (한국문화재단) 부여 동남리 519-8번지 유적	319
유적 28 정봉구 · 박종진 · 신은지 (동방문화재연구원) 부여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324
유적 29 이의지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부여 석목리 농산물유통센터 증축부지내 유적	331
유적 30 강모영 · 김병완 (동방문화재연구원) 부여 쌍북리(261-2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339
유적 31 (미래문화재연구원) 부여 쌍북리(615-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345
유적 32 이인학 (누리고고학연구소) 부여 외리 195-10번지 유적	350
유적 33 강철규 · 신경택 · 최용일 (백제문화재연구원) 부여 청마산성 정비사업부지내 시굴 및 발굴조사 (1)	357

유적 34 강철규 · 이영희 · 최용일 (백제문화재연구원)	
부여 청마산성 정비사업부지내 시굴 및 발굴조사 (2)	368
유적 35 오종길 · 정용준 · 이종찬 (백제문화재연구원)	
부여 호암리 친수구역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380
유적 36 박성규 (동방문화재연구원)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북측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387
유적 37 최병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92
유적 38 이호경 · 양수연 · 권윤아 · 이건종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서천 봉선리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402
유적 39 이인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세종 금이성 정비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410
유적 40 조성윤 (중앙문화재연구원)	
세종 나성동 독락정 유적	417
유적 41 강모영 · 김병완 (동방문화재연구원)	
세종 쌍전리(175-8번지) 단독주택 및 진입로 개설 부지 내 유적	423
유적 42 양형준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세종 행복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428
유적 43 박연서 · 방기영 · 진희경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아산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1~5공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434
유적 44 이재돈 · 신승철 · 김승재 · 홍기택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아산 매곡리 617-6번지 우량농지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445

지/역/별/유/적

유적 45 김진현 (가경고고학연구소)	
아산 서해선(홍성_송산) 복선전철 제4·5공구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451
유적 46 김현일·신은정·김고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아산 영인오층석탑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458
유적 47 정봉구 (동방문화재연구원)	
아산 오목리(443번지) 단독주택 추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465
유적 48 김현일·신은정·이다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3차 발굴조사	471
유적 49 민소리 (누리고고학연구소)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도로공사부지내 유적	482
유적 50 이요한·이만기·이태호 (거례문화유산연구원)	
예산 석곡리 유적	489
유적 51 최병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예산산성 문화유적 발굴조사	495
유적 52 이미란·명승렬·김정진·남기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음성 대소면 대풍리 38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부지 내 유적	504
유적 53 이재돈·신승철·김승재·홍기택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제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512
유적 54 최동혁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진천 구산~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519
유적 55 이미란·명승렬·김정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진천 삼덕리(산 1-1번지) 흥진산업 공장증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523

유적 56 박진우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진천 상신리 244-7번지 (주)스마트엑세스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529
유적 57 문창희 · 이태호 (거례문화유산연구원)		
진천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및 충주 하이패스IC 개설구간 내 유적		535
유적 58 조록주 · 정인선 · 김다희 (중원문화재연구원)		
진천 실원리 공장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541
유적 59 김화정 · 윤소라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진천 양백지구 간선임도 신설사업 부지 내 유적		546
유적 60 김도연 · 석원우 · 강유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진천 장관리 377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551
유적 61 최병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천안 목천 동리 71-4번지 창고 진입로 개설부지 내 유적 발굴 (시굴)조사		557
유적 62 이인학 (누리고고학연구소)		
천안 부성동 유적		565
유적 63 김현일 · 양수연 · 권윤아 · 신은정 · 이건종 · 김고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천안 성거산 위례성 내 용샘 2차 발굴		571
유적 64 강병현 (가경고고학연구소)		
천안 신평리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및 수습발굴조사		580
유적 65 민소리 (누리고고학연구소)		
천안 유리(313-14번지일원)한진철관 공장 증축부지 내 유적개요		586
유적 66 조경진 (혜안문화재연구원)		
천안 청수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593

지 / 역 / 별 / 유 / 적

유적 67 손명수 · 신승철 · 김승재 · 홍기택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주)이에스청주 폐기장 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599
유적 68 김화정 · 소동영 · 서문영 · 신지향 · 윤소라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청주 가경동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603
유적 69 김도연 · 석원우 · 강유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 가경홍골지구 도시개발구역 발굴조사	610
유적 70 윤병일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금천동 금빛도서관 발굴조사	614
유적 71 소준섭 · 윤재윤 · 광명재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주 노산리(41-3번지)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부지 내 유적	620
유적 72 김도연 · 석원우 · 강유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 상당산성 수문터 발굴조사	627
유적 73 김성섭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주 수곡동 잠두봉 유적	634
유적 74 이재돈 · 신승철 · 김승재 · 홍기택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산단)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640
유적 75 소준섭 · 윤재윤 · 광명재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주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부지 내 청주 상봉리 · 정중리 유적	645
유적 76 박준용 · 홍기택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봉산리 옹기가마	652
유적 77 윤병일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현암동 산5-161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659

유적 78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주 흥덕구청사 건립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666
유적 79 (백두문화재연구원)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672
유적 80 안주현 · 곽문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주 금제지~금릉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679
유적 81 김호준 · 이동휘 · 양병모 · 박한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주 대림산성 봉수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685
유적 82 김도연 · 석원우 · 강유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주 대림산성 주차장부지 내 유적	692
유적 83 김호준 · 이동휘 · 양병모 · 박한철 · 이명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주 승선사지 영당지 주변 문화재 발굴조사	699
유적 84 정제원 · 이창호 · 이다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성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성곽 발굴조사	706



제 38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기조강연

기조강연 01 호서고고학회 20년을 돌아보며
/ 조상기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조강연 02 湖西地域 先史考古學: 최근 20년의 발자취
/ 김범철 (충북대학교)

기조강연 03 호서고고학 20년, 역사고고학
/ 박순발 (충남대학교)



호서고고학회 20년을 돌아보며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상기

- I. 학회의 설립
- II. 학회의 성장
- III. 학술활동
 - 1. 학술대회
 - 2. 학술지 간행
 - 3. 기타 학술활동
- IV. 학회의 나아갈 길

I. 학회의 설립

의림지의 서쪽을 뜻하는 호서지역은 동쪽의 소백산맥, 남쪽의 금강, 북쪽의 한남~금북정맥을 지리적 경계로 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어 왔으나, 행정구역에 따른 생활권 형성과 인지 형성에 따라 지금은 대전-세종-충청남북도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흔히 사용된다. 오랜 시간동안 지형의 장벽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 빈도를 다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의 차이를 불러일으켰으며, 고유한 문화권 형성의 배경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호서지역”을 분석대상 지역권으로 설정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이러한 문화권 인식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과거의 흔적을 탐구하는 우리에게 좀더 흔히 접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해석을 위하여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일 것이다. 지역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면서 학술적 발전을 이루고 후속세대의 성장을 돕기 위한 토대로서 호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단체인 호서고고학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호서고고학회는 1997년에 처음 제안되었고,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1997년 7월 14일의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1998년 9월 11일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창립되었다. 초대 이은창회장님을 필두로 하여 현재의 이흥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8분의 학회장을 중심으로 각 운영진과 평의원,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발전하면서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

[표 1] 호서고고학회 역대회장 및 편집위원장 현황

구분	재임기간	회장	편집위원장
제1대	1998.09.11 ~ 2000.08.31	이은창	이흥종
제2대	2000.09.01 ~ 2002.08.31	이용조	박순발
제3대	2002.09.01 ~ 2004.08.31	이강승	한창균
제4대	2004.09.01 ~ 2005.04.30	이강승	한창균
제5대	2005.05.01 ~ 2006.12.31	차용걸	성정용
제6대	2007.01.01 ~ 2008.12.31	차용걸	성정용
제7대	2009.01.01 ~ 2010.12.31	박순발	성정용/김경택
제8대	2011.01.01 ~ 2012.12.31	조상기	김범철
제9대	2013.01.01 ~ 2014.12.31	조상기	김범철
제10대	2015.01.01 ~ 2016.12.31	박보현	이기성
제11대	2017.01.01 ~ 2018.10.현재	이흥종	이기성

II. 학회의 성장

1999년에 설립된 호서고고학회는 많은 개인과 단체의 지원과 희생으로 유지되고 성장하여 왔다. 앞에 나서 견인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학회 운영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쌓음으로써 학술적 성장에 기여하는 연구자로서,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과 기관으로서, 지역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모여 호서고고학회의 성장을 이루었음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외형을 언급하자면, 최초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91개 기관회원과 297명의 정회원, 337명의 일반회원이 모인 인적 규모로 성장하였다. 재정적으로도 국내 고고학 관련 타 학회에 비하여 월등히 안정된 여건을 갖추어 놓았다.

2003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학회의 활동 및 학계 소식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학보의 원문서비스도 이루어졌다. 최근에 이루어진 리뉴얼에서는 고고학 관련 학회 가운데 유일하게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되기도 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여 학회 회원간의 소통을 더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표 2] 호서고고학회 회원현황(2018 현재)

구분		회원수(명)	계
기관회원	장기기관	54	91
	일반기관	37	
정회원	장기회원	111	297
	일반회원	186	
일반회원		337	337
계		91개 기관 634명	

III. 학술활동

학술단체로서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한 학술사업으로 호서고고학회에서는 1. 학술연구발표회, 2. 학술연구지 발간, 3. 고고학에 관한 학술조사, 4. 다른 학회와의 정보교환, 5. 기타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학회의 창립 이래로 학술대회와 학술연구지 발간을 중점 사업으로 지속하여 왔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학술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1. 학술대회

1999년 6월에 열린 첫 학술대회부터 2018년 가을 본 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총 38회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처음 2년동안은 1년에 1회 개최되다가 2001년부터는 봄·가을 2회 개최로 변경되어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는 봄 시즌의 주제발표와 가을 시즌의 연간 조사 결과에 대한 발굴성과 소개 체제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12년에는 호남고고학회와 연합하여 서로의 공통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중부고고학회와 합동으로 각 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학회의 초창기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역의 선사문화, 백제문화, 신라문화, 중세고고학과 같이 시대별로 정리하다가, 2002년부터는 생업경제, 토광묘 문화, 백제의 대외관계 등 좀더 세부적인 주제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여 갔다. 호서지역 내에서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같은 대규모의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시의성을 반영하여 소지역권을 주제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표 3]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	주 제	장 소
1	1999.06.04.	호서지방의 선사문화	대전보건대학
2	2000.06.16.	백제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3	2001.05.19.	호서지방 신라문화의 이해	충남대학교
4	2001.10.26.	호서지방의 중세고고학	고려대학교
5	2002.05.31.	우리나라 선사시대 생업경제	한서대학교
6	2002.11.08.	호서지역의 토광묘 문화	공주대학교
7	2003.04.24.	웅진 사비기의 백제토기	한밭대학교
8	2003.10.31.	호서지역의 성곽	충북대학교
9	2004.04.30.	백제시대의 대외관계	충남대학교박물관
10	2004.10.29.	호서지역의 최근 발굴사례	천안 상록리조트
11	2005.04.29.	저습지 고고학	계룡산자연사박물관
12	2005.10.28.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국립청주박물관
13	2006.05.12.~13	금강 :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군산대학교
14	2006.10.27.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고려대학교
15	2007.04.27.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변천	충남대학교
16	2007.10.26.	2007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국립부여박물관
17	2008.04.26.	호서지역 읍락사회의 변천	충북대학교
18	2008.10.25.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9	2009.04.24.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충남대학교
20	2009.10.30.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앙문화재연구원
21	2010.04.30.	중국 남북조 건축문화와 백제	중앙문화재연구원
22	2010.10.29.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한국전통문화학교
23	2011.04.29.	금강유역 마한 문화의 지역성	중앙문화재연구원
24	2011.10.28.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충북대학교
25	2012.05.11.	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 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충남대학교
26	2012.10.26.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앙문화재연구원
27	2013.05.03.	세종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고려대학교
28	2013.10.24.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앙문화재연구원
29	2014.04.24.	내포신도시 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와 의미	국립공주박물관
30	2014.10.23.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앙문화재연구원
31	2015.04.30.	서산 부장리 고분군의 정체성	중앙문화재연구원
32	2015.10.22.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충북대학교
33	2016.05.26.	금강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문화의 비교연구 중부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천안박물관
34	2016.10.27.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35	2017.04.28.	초기 도시의 고고학	고려대학교
36	2017.10.27.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회차	개최일	주 제	장 소
37	2018.04.27.	길의 고고학	충남대학교박물관
38	2018.10.26.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중앙문화재연구원

2. 학술지 간행

호서고고학회에서 간행하고 있는 학술지 『湖西考古學』은 학회의 설립 직후인 1999년 8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연간 2회 발행해오다 2017년부터 2, 6, 10월에 3회 발행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창간호부터 2018년 6월에 간행된 40호까지 모두 235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한국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006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학술지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다.

호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회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기관 소속 연구원의 논문 게재가 적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3. 기타 학술활동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간행 이외의 학술활동이나 연구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2007년 4월 27일부터 호서고고학회와 7개 조사기관(백제문화재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중원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원·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환경연구소·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하고, 충남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한 호서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연합전으로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 특별전이 진행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도록이 간행되었다.

2017년 4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조기도시의 고고학”과 관련하여 최근에 호서지역의 주요 대상 유적인 나성리유적 중심의 도록이 발간되었다.

2011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부활된 호서고고학회 우수논문상은 학보에 논문을 게재한 젊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선정, 시상하여 후속 세대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간행은 안정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신경써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IV. 학회의 나아갈 길

1999년에 설립된 호서고고학회는 20년을 이어오면서 호서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기여를 하며 성장하여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내실을 다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 이루어 놓은 모습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겠지만,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전의 학회 운영진으로서 일종의 의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원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회원의 경우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합쳐 634명에 달하는데, 2017년의 경우 신규 회원이 단 1명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비록 과거에 비하여 고고학 또는 매장문화재 분야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꾸준히 배출되는 인력과 조사기관 신규 유입 인력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다. 또한 당해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학술지 투고 자격을 제한하는 점에서도 신규 회원의 숫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학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과 관련하여, 현재 장기회원을 제외한 회원 가운데 기관회원의 43%, 정회원의 91%, 일반회원의 97%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현실이다. 고고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회 재정 수입은 조사기관의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조사기관의 운영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회의 재정 자립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학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각 회원에게 어떤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겠다.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 학회의 회원들은 홈페이지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까? 충실한 정보가 편리하게 제공된다면 수시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격의 유적이 조사되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역'의 벽이 사실상 없어지고 조사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 조사자료의 누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고고학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GIS 인트라넷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구멍은 많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회의 입장에서도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술지에 게재하는 연구인력은 고고학 관련 종사자의 구성을 감안하면 매우 편중되어 있다. 조사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대외여건은 기존에 확보된 기초자료를 심화된 연구로 진전시키기에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한다면, 기성세대의 현실에 대한 물 이해라고 치부되고 말아야 할까?

湖西地域 先史考古學: 최근 20년의 발자취

충북대학교 김범철

- I. ‘湖西地域 先史考古學(史)’ 정의하기
- II. 최근 20년 湖西地域 先史考古學의 성장: 양적 측면
 1. 학회활동 및 학회지
 2. 유적조사 및 조사기관
 3. 대학과 고고학 교육
- III. 한국고고학에서 湖西의 先史考古學: 기여의 측면
 1. 한국 선사시대 서술과 호서의 고고학적 문화상
 2. 한국선사고고학의 주요쟁점과 호서의 고고학적 문화상
- IV. 結 論

지난 20년 동안 호서지역 선사고고학이 괄목할 成長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사람으로 20년이면 成年이니...”와 같이 어디에나 등장하는 진부한 말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학문분야가 사람의 인생궤적과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00년 쯤 되면 한 학문분야가 소멸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굳이 통과의례의 시점을 맞이한 사람에 비유하자면, 호서고고학은 質·量의 측면 모두에서 성장했기를 기대·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도 삶의 궤적에 따라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듯, 세월이 지났다고 어떤 학문분야가 자동적으로 질적 제고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쩌해야 ‘제구실’을 하는 것일까? 사람의 성취가 그러하듯 現狀에 대한 평가는 획일적인 잣대에 따를 수는 없다.

다만,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사회성원으로서의 기여나 (비교를 전제한) 세속의 통념을 따르듯, 호서지역 선사고고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고고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선사시대 사회·문화상 서술이나 중요 쟁점의 설명에 기여한 바를 찾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장단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잣대는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발표는 다른 지역¹⁾과 비교하면서 호서지역 선사고고학의 현상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① 호서고고학회의 활동과 학회지 발간, ② 호서지역에서 수행되었던 (발굴)조사와 그 대부분을 담당했던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현황, ③ 그 기관 구성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 등이 ‘현상’을 파악하는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현상파악이 ‘물적 토대(infrastructure)’나 양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면, 뒤이어 제시될 호서고고학의 한국고고학에의 기여는 나름의 질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湖西地域 先史考古學(史)’ 정의하기

본 발표와 같은 종류의 작업은 ‘일부나마’ 특정 기간 내 ‘한 지역 고고학’의 이력 즉, 역사를 살펴야 한다. ‘한국고고학사’, ‘미국고고학사’, ‘일본고고학사’처럼 한 국가를 단위로 그 역사를 살펴보는 작업도 그러하거나, 특정 지역의 고고학사 또한 어떤 요소들로 그 역사를 (재)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즉, 소위 ‘○○고고학’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고고학’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미국 사람이 수행한 고고학적 활동인지, 미국 내에서 확인된 고고학의 내용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으레, 후자를 택하면서 미국 내 고고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게 된다(Willey and Sabloff 1993).

물론, 국가를 단위로 할 때처럼, 공간적 포괄이 광대한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그리 넓지 않은 영토 내에서, 그것도 한 지역의 고고학사를 그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실효를 담보할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우선, ‘특정 현상의 부재’가 그 이유다. 예를 들어, 특정의 고고학적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자. 만약 해당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고고학사에서 그러한 인식전환은 서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 그렇다고 그 지역을 다루는 고고학자들에게 그런 인식전환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고고학사 서술에서 문화사적 복원—고고학적 현상의 내용을 시·공에 걸쳐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흔한 사례로 ‘道誌’, ‘市誌’, 특정지역의 ‘0000年史’를 보자. 상당부분이 남한 전체의

1) 지역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발표가 지역학회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여기서 ‘지역’은 실질적으로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등 4개 지역학회가 포괄하는 행정구역에 따르기로 한다. 중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호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영남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호남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괄한다.

고고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틀을 가져와,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지만 실제 현상의 발현은 미미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실제 고고학사 서술에 있어 장애로 작동할 소지가 크다.

한편, ‘문화사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지역 고고학의 이력 서술에 있어, 인식의 전환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나思潮에 따른 해석과 설명의 轉換을 서술하는 것이 중국에는 최소한 남한 전체의 고고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방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작업과 크게 다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문화상의 변이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類型’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호서지역 여러 유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자. 그것은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변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적용한 것일 뿐, 호서지역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나思潮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살핀, 국가 단위의 고고학사 서술에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 후기과정고고학의 성장과 더불어 온 해석·설명방식의 변화가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발원하지는 않았지만 각 나라의 고고학적 설명을 적잖이 변화하게끔 했을 수 있다.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고고학사 — 예를 들어, Bruce Trigger의 작업(트리거 지음·성춘택 옮김 2010) — 가 아니고서는 독립적인 변화에 따른 설명방식의 전환을 언급하기는 어렵게 된다.

물론, 학적 전통이 다른 나라에서 발원한 이론적 성향이 적극적으로 그 나라 학계에 도입되면서 해석과 설명이 달라지는 현상이나 반대로 매우 배타적인 자세로 새로운 성향에 저항하는 현상을 서술하는 작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 학계, 아니 학계를 선도하는 일부 인식전환이나 고수의 측면이 강하지 그 지역 내 고고학적 활동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좀 더 해상도를 낮추면 평면과 같은 시간대에서 다양한 성향의 공존을 언급하는 것이 학사 고찰의 임무가 된다. 물론, 그러한 평면들을 여러 켜 연결시켜 놓은 것이 ‘학사’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평면의 시간적 단위는 어떠한가? 흔히 1950년대, 1980년대 등 10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당한 분할 기준일까? ‘인식의 전환’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긴 시간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조사현장에서의 고고학적 관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관리당국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현장조사방식과 보고방식은 우리 고고학 관행의 모습을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바꿔 놓기도 하였다. 누구도 고고학적 조사관행이나 일상에서의 실천이, 학사 서술의 대상이 되는 ‘고고학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고학적 활동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변화인지의 시간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 지역의 고고학적 활동에는 상이한 '인지의 시간대'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상호 뒤엉켜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서술할지의 문제를 정해야 하는 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그간 적지 않은 학사 고찰이 '유적발굴의 역사', '해석과 설명의 역사', (개인으로서) '고고학자의 역사'가 되어 온 것에 다소의 불편을 느낀다. 고고학적 실천의 주체로서 고고학(조사·)연구자집단이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물적 토대의 변화에는 다소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그러한 것에 주목하는 작업을 '백서' 혹은 '보고서'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면서 학사에는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조사량의 폭증은..." 등으로 표현하고 만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드러나듯, 그 '폭증'이 변화 유발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증'이 어떤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주목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고고학(조사·)연구자집단이나 물적 토대에 관한 '백서' 형태의 서술도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만은 강조하고 싶다.

백서 형태의 서술이 다소 무미건조할 수는 있고, 인식전환만을 강조하는 시각이 앞서 살핀바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인식전환의 문제를 차치하고 그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을 연대기적으로 다룬다면, 그 또한 충분치 않아 보인다. 특정 지역에 소재한 유적(들)의 조사 과정이나 중요성을 서술하면서 자칫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작업이 될 우려(성춘택 2017)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인 성향을 띠는 해석과 설명의 틀 변화가 특정 지역 문화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부각하는 작업 또한 한 지역의 고고학사 서술의 기준이 되기는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 지역의 유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가 한국고고학계의 인식변화에 기여했다." 정도가 그 내용일 터인데, 자칫 지방사 서술의 상당부분이 자랑스럽게 "서울 가서 왕비나 재상을 하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데 대한 우려(金範哲 2008; 김한중 2007)와도 맥이 닿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서너 가지 학사서술의 방향 각각은 '지역'의 고고학을 정의하고 그 이력을 살펴보는 작업에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러한 방향의 시도 모두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본 발표는 그러한 몇 가지 방향의 시도를 혼용하되, 『白書』 형태의 서술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백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평가와 비전의 제시는 다소 자제하고자 한다. 그 첫째 이유는 '과연 비전이 가리키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기초발표의 내용이 주로 선진학계의 동향을 설명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흔히 전국이 대상인 학술대회

에서는 그 지점을 선진학계의 성취로 잡고 있는 듯하다. 과연 지역학회도 그러해야 할까?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한 작업이 도약을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소 오만스럽거나 무모해 보일 수도 있음을 자각했으면 한다. 오히려 타 지역학회에 대한 비교우위를 접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본 발표가 다른 지역(학회)과의 비교를 통해 호서의 고고학이 가지는 장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비교우위를 접하고 진정한 강자끼리 겨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II. 최근 20년 湖西地域 先史考古學의 성장: 양적 측면

특정 지역 고고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작업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발을 딛고 있는 지점이 현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즉 현상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고고학적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고고학(조사·)연구자집단이 어떤 모습이고 그들의 활동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서지역 선사고고학의 現狀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회활동 및 학회지

호서지역 선사고고학의 현상을 파악하는 작업의 처음에 ‘학회’를 배치한 것은 학회의 수립이 호서지역 고고학의 물적 토대를 이해함에 있어 가지는 적잖은 의미 때문이다. 학회는 (연구자)회원의 결합인 만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의 발굴관행과는 달리 지난 20년의 상당부분은 법적, 현실적 이유로 ‘지역제한’이 제법 강하게 작동되었음을 감안하면, 호서지역에서 고고학적 활동이 상당한 정도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호서고고학회는 1999년 현재의 4개 지역학회 중 3번째로 창립²⁾되어, 2018년 상반기까지 총 37회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40집의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학술발표회의 경우, 총 37회³⁾ 중 지역 내 유적조사 성과를 다룬 14회를 제외한 23회를 분류해보자면, 시대에 상관없이 특정 대상을 다룬 통시대적 각론 성격의 발표회 3회, 대규모 발굴에 따라

2) 중부고고학회는 2010년 창립되었으나 그 전신인 서울·경기고고학회와 강원고고학회는 2002년에 창립되었다. 호남고고학회는 1993년, 영남고고학회는 1984년 창립하였다.

3) 2006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각각 호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와 합동대회를 하여 독자적인 주최는 35회이다.

해당 지역 문화상을 통시적으로 다룬 발표회 2회, 역사시대 문화상을 다룬 발표회 13회, 선사시대 문화상을 다룬 발표회 5회 등이다. 역사고고학에 비해 선사고고학 분야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역학회의 포괄지역이 고대국가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⁴⁾되어 있어 해당 유적의 발굴이 많고 연구가 활성화되어 그럴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국을 포괄하는 한국고고학회의 경우 단지 이론·방법론과 통시대적 각론을 다룬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양상이 다를 뿐 역사고고학 분야의 편중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표 1 참조).

학회지인 『湖西考古學』의 최근호가 40호이긴 하지만 두 번의 합집 - 2001년의 4·5집, 2002년의 6·7집 - 이 있어 실제로는 38권이 발간된 셈이다. 38권의 학회지에 수록된 186편의 글은 선사분야 51편, 역사분야 95편, 기타 40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186편의 글은 128명의 저자⁵⁾에 의해 작성되어 개별저자당 1.45편으로, 2개의 전국대상 학회지 - 『한국고고학보』와 『한국상고사학보』 - 와 4개 지역학회지 - 『湖西考古學』을 포함하여, 『고고학』, 『영남고고학』, 『호남고고학보』 - 를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의 1인당 2.61편(표 2 참조)보다는 낮다.

[표 1] 학술대회 주제비교

주제	호서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이론·방법론	0 (0.0%)	5 (25.0%)
통시대적 각론	3 (13.0%)	6 (30.0%)
발굴지역 양상	2 (8.7%)	0 (0.0%)
선사고고학	5 (21.7%)	2 (10.0%)
역사고고학	13 (56.5%)	7 (35.0%)
회수	23	20
해당기간	1999~2018	1999~2018

[표 2] 주요 학회지별 게재 논문 수 및 (제1)저자 수

학회지	분야			선사			역사			기타			계(평균)		
	논문	저자	비	논문	저자	비	논문	저자	비	논문	저자	비	논문	저자	비
한국고고학보	71	48	1.48	156	111	1.41	100	76	1.32	327	192	1.70			
한국상고사학보	72	47	1.53	147	112	1.31	131	84	1.56	350	208	1.68			
소개(평균)	143	73	1.96	303	194	1.56	231	133	1.74	677	317	2.14			
고고학	37	25	1.48	82	59	1.39	31	27	1.15	150	113	1.33			
湖西考古學	51	34	1.50	95	71	1.34	40	38	1.05	186	128	1.45			
영남고고학	43	35	1.23	127	94	1.35	42	36	1.17	212	143	1.12			
호남고고학보	69	47	1.47	118	76	1.55	61	46	1.33	248	132	1.88			
소개(평균)	200	111	1.80	422	260	1.62	174	130	1.34	796	405	1.97			
계(평균)	343	141	2.43	725	376	1.93	405	307	1.91	1,473	563	2.61			

4) 호서·호남고고학회의 포괄지역은 馬韓이나 百濟와 영남고고학회의 포괄지역은 兪·辰韓이나 伽耶, 新羅 영역과 대체로 합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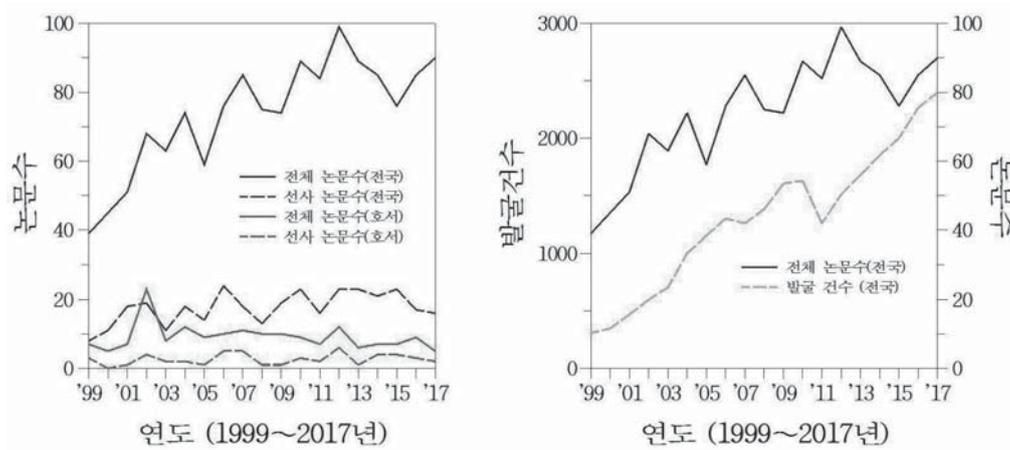
5) 단독저자와 공저의 경우 제1 저자만을 기준으로 한다.

『湖西考古學』에 발표된 선사고고학 분야 논문 51편을 시대에 따라 세분하면, 구석기시대 6편, 구석기-신석기시대 1편, 신석기시대 6편, 청동기시대 38편 등이다. 74.5%의 글이 청동기시대에 관련되어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6개 학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69.1%—237편/343편—를 상회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湖西考古學』의 특수한 측면은 아니다. 4개 지역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72.0%—144편/200편—나 『고고학』의 73.0%, 『영남고고학』의 74.4% 등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지역학회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는 것과는 달리 『湖西考古學』의 연도별 추이는 여타 학회지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게재 논문 수의 등락이 미약하다. 물론 연간 게재논문수와 연발간호수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다른 학회가 연 두 개호 발간에서 세 개호 발간, 네 개호 발간으로 호수를 늘리는 시점마다 게재논문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표 3과 도면 1의 좌측 도표 참조). 호서고고학회는 2017년부터서야 연 세 개호를 발간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자慰하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남는다. 표 3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 발간 호수가 고정된 학회지에서도 게재 논문수의 수는 현저한 등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湖西考古學』에는 그러한 현상이 미약하다.

[표 3] 주요 학회지의 논문 게재 추이(199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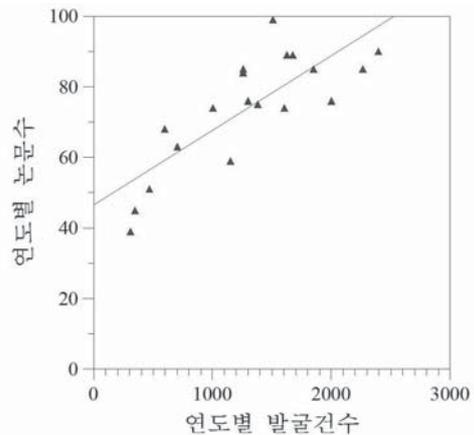
학회지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12	13-14	15-16	17-18
한국고고학보	논문수	18	26	24	32	30	42	41	33	48	33
	연발간	2	2·3	3	3·4	4	4	4	4	4	4
한국상고사학보	논문	23	24	36	32	38	37	47	35	34	44
	연발간	2	3·2	4	4	4	4	4	4	4	4·3
고고학	논문	0	6	15	15	16	14	20	31	19	14
	연발간	0	0·1	1·2	2	2	2	2·3	3	3	3·1
湖西考古學	논문	12	30	20	19	21	19	19	13	16	17
	연발간	2·1	2	2	2	2	2	2·3	1·2	2	2·3
영남고고학	논문	14	14	18	16	28	25	32	34	15	16
	발간	2	2	2	2	4	4	4	4·3	2·3	3·1
호남고고학보	논문	17	19	24	21	27	26	24	28	29	33
	발간	2	2	2	2	2·3	3	3	3	3	3·2
합계(논문수)		84	119	137	135	160	163	183	174	161	157



[도면 1] 주요 학회지의 논문 게재 추이(좌)와 발굴 추이(우)

무엇이 게재논문 수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몇 가지 시행착오적 실험을 해보아도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역학회별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상관성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발굴 건수와 게재논문 수의 상관성이다(도면 1의 우측 도표와 도면 2 참조). 발굴이 늘면 고고학적 문화내용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분명치는 않다. 다만 그러한 추정이 맞고, 연 발간 호수에 관계없이도 논문 수가 늘고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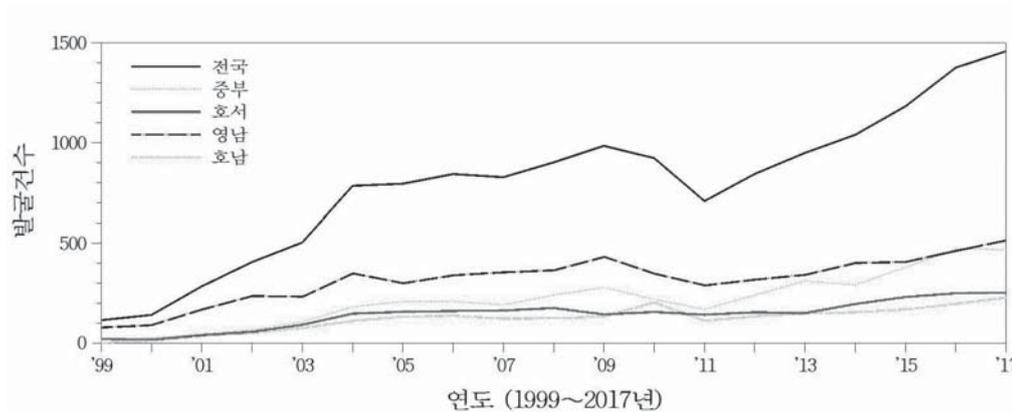
학회가 논문의 투고를 제한하거나 게재논문수를 조절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학회 지에는 지역 소재기관의 신진연구자의 논문 수록이 상대적으로 많다. 후술할 바이지만 호서지역의 발굴건수는 약간의 등락은 있었고 느슨하긴 하지만 부단히 증가해왔으며, 그 발굴의 절대수를 호서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담당해왔다. 이 네 가지를 앞서 살핀 일반적 양상과 결합하여 생각하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 “혹 호서지역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의욕이 부족하지는 않나?” 하는 점이다.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와 같이 발표자의 능력으로는 연 발간 호수를 제외하고는 게재 논문의 수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러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도면 2] 연도별 주요학회지 논문수와 발굴건수의 관계

2. 유적조사 및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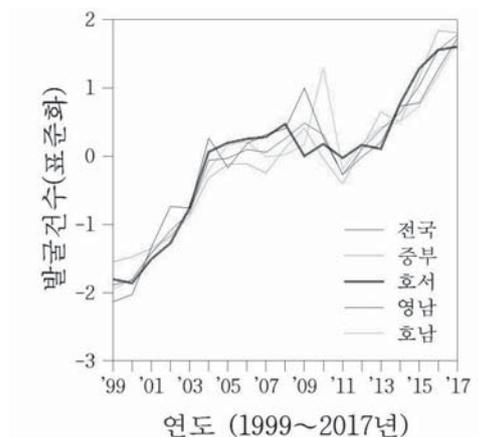
우리 고고학을 다루어 온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지난 20년 우리 학계는 조사의 폭발적인 증대를 경험하게 된다. 유적 발굴은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꺾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를 이어왔다(도면 3 참조).



[도면 3] 지역별 발굴 건수의 추이

다만 등락의 양상은 지역 간 다소의 차이가 있다. 대체로는 전국적 양상과 꺾을 같이 하지만 호서지역의 양상은 다소 다르다. 2003~2004년의 급등, 2007~2009년의 증가에 이은 2010~2011년의 급락양상이 분명하게 인지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타 지역보다는 느슨하고 완만한 증감을 보인다(도면 3 참조). 뿐만 아니라 나름의 등락양상도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도면 2⁶⁾ 참조).

이러한 발굴증대는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발굴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의해 선도되었다. 1994년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2005년까지만 해도 30개 기관에 756명이 종사하는 정도였으나 현재(2018년 10월 1일 기준)는 113개 기관, 1900여명에 이르게 성장하면서 지난 20년간 전국 발굴의 88.4%를 담당해왔다.



[도면 4] 지역별 발굴 건수의 추이(표준화)

6) 최근 20년이라고는 하지만 2018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2017년까지를 실질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호서지역도 그러한 경향에서 예외이지 않다. 현재(2018년 10월 1일 기준) 호서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기관—가나다순으로 거명함—은 (재)가경고고학연구소, (재)고운문화재연구원,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재)누리고고학연구소, (재)동방문화재연구원, (재)미래문화재연구원,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재)비전문문화유산연구원, (재)서원문화재연구원,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재)중앙문화재연구원⁷⁾ 등 총 19개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기관의 15.9%—호서지역의 면적가중치를 부과하면 22.9%—에 해당한다(표 5 참조).⁸⁾ 이들은 지난 20년 간 전국 발굴의 14.7%, 호서지역 내 발굴의 91.5%를 담당해왔다. 굳이 수치를 대지 않더라도 흔히 예상하는 대로 호서지역 고고학을 위한 일차적인 자료수집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왔다. 다만, 기관의 수에 대비해보면, 전국 발굴의 담당비중이 미세하게나마 낮은 셈이다.

[표 4] 지역별 발굴현황(1999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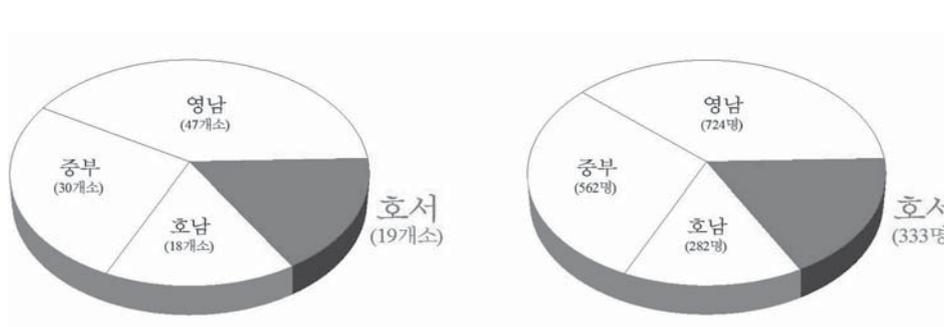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발굴건수(건)	
			原	가중치
충부	28,724.8 (31.5%)	27,187,641 (52.6%)	5,144 (28.1%)	[16,357.8] (22.3%)
호서	16,616.6 (18.2%)	5,391,260 (10.4%)	3,271 (17.9%)	[17,981.2] (24.5%)
영남	23,277.0 (25.5%)	13,273,730 (25.7%)	7,034 (38.4%)	[27,603.0] (37.6%)
호남	22,725.7 (24.9%)	5,875,300 (11.4%)	2,845 (15.6%)	[11,435.2] (15.6%)
전국	91,344.1	51,727,931	18,294	[73,377.2]

[표 5] 지역별 발굴조사 전문기관 및 연구원 현황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전체	비영리법인				
				기관		연구원(명)		기관당 연구원 (명)
				원	가중치	원	가중치	
충부	28,724.8 (31.5%)	27,187,641 (52.6%)	51 (28.8%)	30 (26.5%)	[95] (20.9%)	562 (29.6%)	[1,787] (23.5%)	18.7
호서	16,616.6 (18.2%)	5,391,260 (10.4%)	28 (15.8%)	19 (15.9%)	[104] (22.9%)	333 (17.5%)	[1,831] (24.1%)	17.5
영남	23,277.0 (25.5%)	13,273,730 (25.7%)	65 (36.7%)	46 (40.7%)	[184] (40.4%)	724 (38.1%)	[2,841] (37.4%)	15.4
호남	22,725.7 (24.9%)	5,875,300 (11.4%)	33 (18.6%)	18 (15.9%)	[72] (15.8%)	282 (14.8%)	[1,133] (14.9%)	15.7
전국	91,344.1	51,727,931	177	113	[455]	1,901	7,592	16.7

7) 재단법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의 공식적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원장이 호서고고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소속 연구원이 한국고고학회의 호서지역 평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호서지역 소재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8) 표 5의 (면적)가중치를 참조하면 된다. (면적)가중치는 전국면적÷해당지역면적을 원(래) 수치에 곱한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에는 현재(2018년 10월 1일 기준) 총 333명의 연구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전국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17.5%—면적가중치를 부과하면 24.1%—에 해당한다(표 5 참조). 그런데, 전국 발굴 건수의 담당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관수를 대비했을 때보다도 좀 더 낮아 발굴 수주에 다소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도면 5] 지역별 발굴전문기관 및 종사자 수(좌: 기관, 우: 연구원)

기관의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큰 편이다. 평균적으로 한 기관에 17.5명이 근무하는 셈인데, 전국의 16.7명에 비해 다소나마 높으며, 중부지역 다음이지만 영·호남지역보다는 높다. 근래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이 分枝를 거듭하여 소형화하면서 조사 외 부분에 대한 고정비용의 총량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으나 호서지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 하겠다(표 4 참조).

3. 대학과 고고학 교육

2016년 발족한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회장 박양진(충남대학교), 전국회원 86명(2018년 10월 10일 기준), 이하 전고협—에 소속된 교수 23명의 재직을 기준으로 하건대, 호서지역에는 고려대학교(문화유산융합학부), 공주대학교(문화재학과), 단국대학교(역사학과), 대전대학교(역사문화학과), 대전보건대학교(문화재학과), 충남대학교(고고학과), 충북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한국교통대학교(교양학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유적학과) 등 9개의 대학에서 고고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수의 구성으로 보면, 선사고고학 분야가 7명, 역사고고학이 13명, 기타가 3명 등이다.

대학의 수로 보면, 호서지역은 중부지역의 절반가량이지만 교수 수로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 중부지역 대학 중 전고협 소속 교수가 1명인 곳이 10개교나 되는 점, 중부지역이 면적은 약 2배, 인구는 5배쯤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호서지역의 고고학 교육이 훨씬 밀도 있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고고학 분야는 절대수에 있어서도 중부고고학회 지역마저 압도한다. 또한 면적이 넓고 인구규모도 큰 영·호남지역에 비해서는 이미 대학이나 전공교수의 절대수가 많다(표 6참조).

[표 6] 지역별 대학현황

지역	대학	교수			
		전체	전공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	기타
중부	17 (40.5%)	27 (100.0%) (31.4%)	10 (37.0%) (34.5%)	8 (29.6%) (20.5%)	9 (33.3%) (50.0%)
호서	9 (21.4%)	23 (100.0%) (26.7%)	7 (30.4%) (24.1%)	13 (56.5%) (33.3%)	3 (13.0%) (16.7%)
영남	8 (19.0%)	21 (100.0%) (24.4%)	7 (33.3%) (24.1%)	11 (52.4%) (28.2%)	3 (14.3%) (16.7%)
호남	8 (19.0%)	15 (100.0%) (17.4%)	6 (40.0%) (20.7%)	6 (40.0%) (15.4%)	3 (40.0%) (16.7%)
전국	42	86 (100.0%)	29 (33.7%) (100.0%)	39 (45.3%) (100.0%)	18 (20.9%) (100.0%)

특히 3인 이상의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의 수는 호서고고학회와 영남고고학회 지역에 각각 4개교, 호남고고학회 지역에 3개교, 중부고고학회 지역에 2개교가 있다. 한 대학에 다수의 교수가 재직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교육이 수행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마저 고려하면, 호서지역의 고고학 교육상황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는 1999년 후반부터의 증대가 주된 원인으로 작동한다. 학과의 신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설립(2000년) 등—, 학과 분리 및 기존 학과들의 꾸준한 교수 증원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해졌다. 선사고고학분야를 예로 들자면, 호서고고학회가 출범할 당시 교수는 4명이었지만 현재는 7명으로, 호서의 선사고고학은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보아도 최근 20년간 2배가량 증대된 셈이다.

Ⅲ. 한국고고학에서 湖西의 先史考古學: 기여의 측면

조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지역별 비교가 특정 지역의 고고학적 활동을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로 남은 문화내용이 한국 선사와 고대의 서술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는 최소한 간접적이거나 해당 지역 고고학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지역의 선사·고대인들의 활동이 당시 사회문화상을 얼마나 양호하게 반영하는지, 현대의 토목공사가 그런 지점에 얼마나 집중되었는지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크게 이견을 제시할 생각도 없고, 그러한 기여가 고고학적 활동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다고 역설할 생각도 없다.

다만, 지난 20년의 시간을 사람의 成年에 비유하며, '제구실'을 평가하자는 서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한 지적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심성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덕에 '제구실'을 잘한다면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즉, 배경에 대한 분석이 결과적 기여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의 기회를 뺏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고고학에서 호서지역 고고학적 활동의 기여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은 한국선사고고학에서 호서지역의 기여도가 매우 높고 평가받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1. 한국 선사시대 서술과 호서의 고고학적 문화상

현재까지 호서지역에서 확인·조사된 선사유적은 수백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시대별로 발간된 『韓國考古學專門事典』(국립문화재연구소 2004·2012·2013)에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대략을 추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표 7은 그 세부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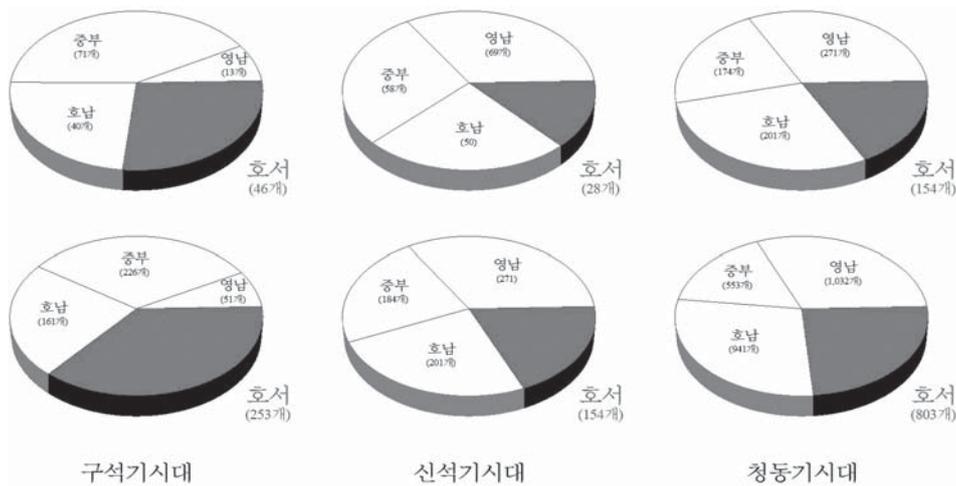
지역 간 유적 수의 차이가 심하고, 시대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진다. 시대별 『韓國考古學專門事典』의 발간에 시차가 있고 청동기시대 편인 경우 발간이 14년 전이라 얼마나 현재의 상황을 잘 대변할지 의문이 들지만, 증보판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에 참여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지역별 양상이나 경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호서지역의 경우, 구석기시대 유적의 수에서 강점을 보인다. 원래 개수는 중부지역 다음이지만 (면적)가중치를 부여한 수는 중부지역을 능가한다. 호서지역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좀 더

[표 7] 4개 지역학회 (포괄)지역 내 선사유적 현황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고고학사전 수록 선사유적					
			구석기(2013)		신석기(2012)		청동기(2004)	
			原	가중치	原	가중치	原	가중치
중부	28,724.8 (31.5%)	27,187,641 (52.6%)	71 (41.8%)	226 (32.7%)	58 (28.3%)	184 (25.9%)	174 (21.3%)	553 (19.5%)
호서	16,616.6 (18.2%)	5,391,260 (10.4%)	46 (27.1%)	253 (36.6%)	28 (13.7%)	154 (21.7%)	146 (17.9%)	803 (28.4%)
영남	23,277.0 (25.5%)	13,273,730 (25.7%)	13 (7.6%)	51 (7.4%)	69 (33.7%)	271 (38.2%)	263 (32.2%)	1,032 (36.5%)
호남	22,725.7 (24.9%)	5,875,300 (11.4%)	40 (23.5%)	161 (23.3%)	50 (24.4%)	201 (28.3%)	234 (28.6%)	941 (33.3%)
전국 (남한)	91344.1	51,727,931	170	691	205	810	817	3329

왕성하게 활동해서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존조건이 양호해서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되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면적)가중치가 거의 직접적으로 밀도를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호서지역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양상은 구석기와는 사뭇 다르다. 가중치를 부여하여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한편 청동기시대 유적의 상황은 그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영·호남지역보다 낮다(도면 6 참조).



[도면 6] 『고고학전문사전』 수록 선사유적 현황
(윗 행: 原수치, 아래 행: 가중치 부여)

고고학자로서 어떤 유적은 중요하고 어떤 유적은 덜 중요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문화양상을 잘 반영하거나 특이한 유적을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적이 많이 확인·조사되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양상이 해당 시기의 전반적인 고고학적 문화상이나 특이성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추정도 해본다.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한국고고학회편 2010)의 선사시대 부분의 본문—단순히 분포상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지도 표시 유적은 제외함—에 얼마나 많은 유적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러한 추정이 터무니없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책은 교재나 수험서로도 널리 쓰이는 덕에, 한국고고학개설서 중 현재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고고학계 전반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결국, 가장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한국고고학, 좁게는 한국선사고고학 서술의 척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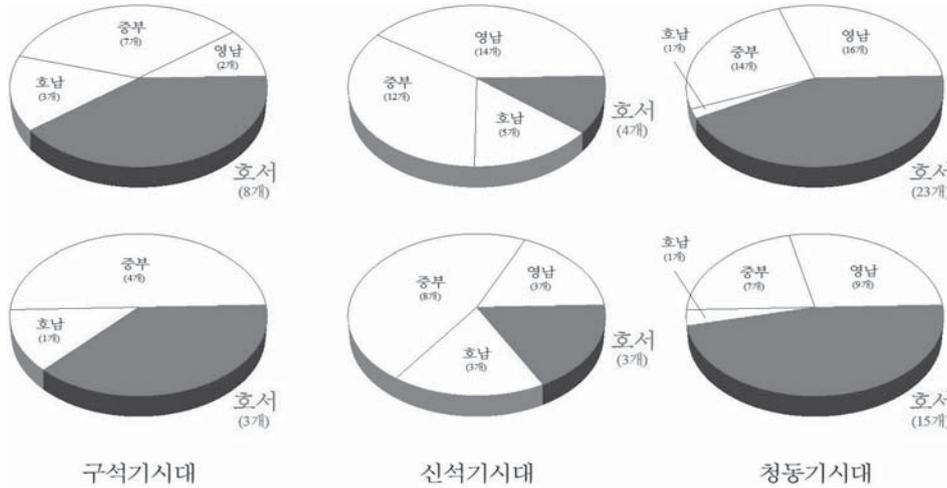
표 8은 이 책의 본문에 수록된 유적 소재지의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8과 도면 7을 보면, 호서지역 소재 유적의 수록이 압도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이 그러하다. 구석기시대 유적의 경우, 『韓國考古學專門事典』에 수록된 유적이 많은 만큼 호서지역의 유적밀도가 높아 그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청동기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앞서 살핀 대로 『韓國考古學專門事典』에 수록된 청동기시대유적 수에서 호서지역은 영·호남지역에 이어 3번째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비중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주의를 끄는 것은 1999년 이후에 보고된 유적의 양상이다. 일부 지역 소재의 유적은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호서지역 소재의 유적은 그 비중이 대체로 늘고 있다.⁹⁾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해의 방향이 바뀌어도 불구하고 한국 선사시대 사회·문화상을 서술하기에 적합한 유적이 호서지역에서 계속 양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한국고고학강의』 수록 선사유적 현황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전체		'99이후		전체		'99이후		전체		'99이후		전체		'99이후	
전국 (남한)	109	(100.1) (99.9)	57	(100.0) (99.9)	20	(100.0) (18.3)	8	(100.0) (14.0)	35	(99.9) (32.1)	17	(99.9) (29.8)	54	(100.0) (49.5)	32	(100.0) (56.1)
중부	33	(30.3) (100.0)	19	(33.3) (99.9)	7	(35.0) (21.2)	4	(50.0) (21.0)	12	(34.2) (36.4)	8	(47.1) (42.1)	14	(25.9) (42.4)	7	(21.9) (36.8)
호서	35	(32.1) (100.0)	21	(36.8) (100.0)	8	(40.0) (22.9)	3	(37.5) (14.3)	4	(11.4) (11.4)	3	(17.6) (14.3)	23	(42.6) (65.7)	15	(46.9) (71.4)
영남	32	(29.4) (100.1)	12	(21.1) (100.0)	2	(10.0) (6.3)	0	(0.0) (0.0)	14	(40.0) (43.8)	3	(17.6) (25.0)	16	(29.6) (50.0)	9	(28.1) (75.0)
호남	9	(8.3) (100.0)	5	(8.8) (100.0)	3	(15.0) (33.3)	1	(12.5) (20.0)	5	(14.3) (55.6)	3	(17.6) (60.0)	1	(1.9) (1.1)	1	(3.1) (20.0)

9) 구석기시대 유적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도면 7] 『한국고고학강의』 수록 선사유적의 지역별 비중
(윗 행: 유적 전체, 아래 행: 1999년 이후 발굴 유적)

2. 한국선사고고학의 주요쟁점과 호서의 고고학적 문화상

최근 발표된 몇 논고들(성춘택 2017; 신숙정 2011 · 2015; 이기성 2018; 이영덕 2015)을 참조하면 우리 선사시대 사회 · 문화상에 대한 현행의 이해에서 쟁점화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다.¹⁰⁾

구석기시대: ① 임진-한탄강유역 유적 형성, ② 아슐리안기법의 인지, ③ 후기 구석기문화의 형성 배경, ④ 세석기 제작전통

신석기시대: ① 초창기의 설정과 당시 사회의 존재양태, ② 동해안지역에서 조-전기의 설정, ③ (중서부지역) 대규모 취락형성 및 취락규모 변동의 배경, ④ 금강식 토기의 특수성, ⑤ 작물재배의 양상

청동기시대: ① 신석기-청동기시대 전이 및 早期 설정, ② 前期 3유형(可樂洞, 欣岩里, 驛三洞) 간 관계, ③ 中期문화의 지역성, ④ 선송국리-송국리유형 관계 및 전-중 전이과정, ⑤ 생계경제 배경과 수도작의 파급, ⑥ 사회계층성의 형성배경과 그에 인지와 인식, ⑦ 점토대토기문화의 형성

10) 몇몇 저작을 통해 발표자가 선별한 개별 쟁점들을 확인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成春澤교수, 부산대학교 林尙澤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李基星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서 살핀 한국선사고고학의 주요쟁점 중에는 호서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상과 무관한 것도 있지만 매우 밀접한 것도 있다.

구석기시대의 경우, '③ 후기 구석기문화의 형성'과 '④ 세석기 제작전통'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호서 및 호남지역의 유적들이 상당부분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구석기시대 후기를 인지하는 대표적인 석기인 '슴베찌르개'를 확인하고 그 문화적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은 호서지역에서의 조사로 발단이 되었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세석기의 제작과정이나 석재조달방식과 관련된 다소의 이견은 대체로 호서지역의 유적에 대한 분석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신석기시대의 경우, '④ 금강식 토기의 특수성'과 '⑤ 작물재배의 양상'에는 호서지역 유적들에서 확인된 양상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를 그대로 금강식토기는 금강유역에 한정하여 나타난 특수한 토기로 인식하면서 그 발생배경이 다소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분포가 그리 한정적이지 않음이 드러나 더 이상 쟁점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곡물자료가 나오면서 호서지역 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 작물재배에 관한 논쟁을 촉발하였으나 동정예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선사고고학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 청동기시대에 관한 한 호서지역에 주목할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① 신석기-청동기시대 전이 및 초기 설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쟁점 모두에서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상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세 유형의 관계는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의 골격을 이룬다. 당초 1970년 대 중반 이후, 동북한과 서북한 문화요소의 개별 남진과 한강유역에서의 결합으로 설명되면서 소위 '혼암리유형'이 가장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에 들면서 호서지역의 유적분포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혼암리'적 양상을 유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득세하였으나 얼마지 않아 문양요소의 해체에 초점을 맞추며 제기된 '가락동식→혼암리식→역삼동식' 순의 토기양식 발달과정에 대세를 이루고 현재까지 골격의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송국리유형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며, 중기를 설정한 것은 이미 1990년대 초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추동하여 소위 '송국리문화권' 밖에서 중기를 찾으려는 노력이나 그 타당성을 둘러싼 다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 찾아들기는 하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 '선송국리○○'와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호서지역 유적의 분포상이나 유구 간 관계, 생계적 배경을 둘러싸고 다소 격심해지기도 하였다.

청동기시대 중기에 들어 수도작의 과급이 본격화된다는 인식과 광역적 정치체의 형성이나 계층발생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결합하면서, 한국고고학의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뜨거운 논쟁이

일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호서지역을 필두로 발견되기 시작한 논유구의 규모나 호서지역에서 가장 밀도 높게 발견되는 옥외저장시설 집중유적 등의 소재가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전반 점토대토기문화의 요령기원설이 대두되면서 그 전과경로나 남한 내의 정착과정에 대한 논쟁은 호서의 해안지대 유적을 재료로 점화되었다.

IV. 結 論

지난 20년, 호서의 (선사)고고학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성장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바, 그다지 특이할 것은 없다. 그러나 성장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여타 지역이나 전국적인 양상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학회지의 논문 수 추이가 그러했고, 발굴 건수의 등락패턴이 그러했다. 그 패턴을 관통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현저한 등락이 없었다.’ 정도일 것이다. 단지 대학교육은 여타 지역에 대해 확연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 점은 다른 한편의 특징이기도 하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과는 달리 한국선사고고학 서술과 주요논쟁에서 호서지역의 기여는 확실한 주목을 끌만하다.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의 양상이 그러하다. 특히 청동기시대는 유적의 수는 적으나 한국선사고고학 서술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 쟁점화되었던 문제들에 중요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 青銅器時代編』, 대전: 國立文化財研究所.
國立文化財研究所, 2012, 『韓國考古學專門事典: 新石器時代編』, 대전: 國立文化財研究所.
國立文化財研究所, 2013, 『韓國考古學專門事典: 舊石器時代編』, 대전: 國立文化財研究所.
金範哲, 2008, 「충청지역의 선사유적 조사와 역사교육」, 『호서사학』 50, pp. 1~25.
김한중, 2007, 「교육의 지역화와 지방사 교육의 방향」, 『역사속의 충청, 역사교육속의 충청』, 2008년 상반기 호서사학회 기획발표회, pp. 1~7.
성춘택, 2017, 「한국 구석기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8, pp. 5~41.
신숙정, 2011,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단연구원 편, 서울: 서경문화사.
신숙정, 2015, 「한국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토론문」, 『한국의 고고학사 I』, 제4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pp. 242~251.
이기성, 2018,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pp. 41~70.
이영덕, 2015, 「신석기시대 연구사: 도구와 생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고학사 I』, 제4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pp. 38~67.
트리거, 브루스 지음/성춘택 옮김, 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개정판)』, 서울: 사회평론.
한국고고학회 편, 2011, 『한국고고학강의(개정판)』, 서울: 사회평론.
Willey, Gordon Randolph, and Jeremy A. Sabloff.
1993 A History of American Archaeology. New York: W.H. Freeman.

I. 성장과 반성

호서고고학회 창립 20년의 역사는 정확히 한국고고학계의 양적 성장의 역사와 겹친다. 1997년 지표조사의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고고학적 조사 수요는 이제 학계의 관심을 넘어 사회적 관심이 되었다. 그에 따라 고고학은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의 소박한 위치를 벗어나 토지개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활동의 길목을 규제하는 위치로 급상승한 것이다. 사회적 접점이 거의 없었던 한적한 인문학의 한 모서리 붙어 닦친 태풍을 견디기에는 고고학계의 역량이 부족하였음은 불문가지였으니, 그간의 고고학계의 경과가 곧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생물계 전반이 그러하듯 갑자기 조성된 유리한 성장환경은 그 반작용도 수반되기 마련이니, 고고학계에 제공된 풍부한 조사기회, 즉 사회적 수요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유용한 자양분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면서 내외적 문제로 귀결되었다. 바람직한 조사 전담기구의 형태와 운영주체 등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검토 없이 민간 법인체제의 선택과 육성은 현재 가히 한국 특유의 고고학 환경이라 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학문내적으로는 자료의 증가에 비해 학술적 확대재생산 혹은 성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식한 농작물이 착근도 하기 전 지나친 비료나 수분을 공급하면 고사해버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고고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지난 20여년의 기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또한 용이하지는 않다. 그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고고학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모든 학문 영역이 그렇듯 기초 혹은 순수 영역과 응용 혹은 사회적 수요 부응의 영역이 있게 마련인데, 고고학의 경우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국가나 사회는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견·조사·보존이 중요할 뿐 그것을 행하는 고고학의 육성과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그 자체 골동적(骨董的) 가치에 치중된 관념의 산물임은 두 말할 필요 없으므로 고고학자료를 통해 과거사를 연구·복원한다는 고고학적 인식 자체와 매우 다르다.

그에 대한 연구 역시 고고학자료 가운데 매우 좁은 한 부분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고고학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국가 문화재 관리 체제가 바로 현재의 문화재청·문화재연구소 시스템이다. 고고학은 자료 확보 단계 일련의 조사는 모두 발굴제도과의 행정적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위한 인허가 사항과 보고서 발간 등 절차적 양적 행정관리만 담당할 뿐 조사의 품질 유지와 직결되는 고고학자의 육성이나 조사연구의 질적 관리는 완전히 방기되어 있다.

학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이 결여되기는 마찬가지다. 조사원 자격 인정 및 육성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였고, 규제 및 양적 관리 중심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대처 역시 본질적이지 보다는 미봉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한국고고학계의 연구역량 저하를 초래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 것이 이른바 ‘사실보고(事實報告)’에 충실하지는 명분의 등장이다. 2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보고서 발간 기간 규제에 대응한 학계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관성은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도대체 ‘사실 보고’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리 저러한 유구에서 그런 저런 유물이 얼마나 나왔고, 그 형태, 재질, 제원은 여하하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인가. 고고학자료는 일반적으로 극히 부분적인 형태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정 유물의 파편이 본래 어떤 모양의 어느 부분인지도 직관적인 관찰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유사한 선행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 검토한 연후에 비로소 판단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고찰’ 없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을까 지극히 의문이다.

따라서 그간의 이른바 ‘사실 보고’는 유물이나 유구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지(既知)의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매년 수백~1천여건의 보고서가 학계에 공급되어도 고고학자료로서 학술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것이 극히 적은 것은 이러한 보고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보고서의 문제는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 그를 토대로 재생산되는 발굴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하면서 고고학조사 전반의 질적 저하로 집적되기 마련이다. 보고서 평가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시되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찰’이라 여긴다. 그러나 ‘고찰’에는 도대체 무엇을 다루어야 좋을지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짚어 볼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고고학의 본래의 학문적 목표를 되돌아보는 것이라 여긴다.

II. 주요 성과

지난 20년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새로운 고고학자료의 확보를 통해 새로운 고고학적 관심의 창출 및 연구 영역의 확대가 있었다. 그 가운데 호서지역의 지역특성과 관련된 역사고고학의 영역은 역시 마한과 백제의 고고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와 관련하여 취락, 묘제, 도성, 불교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그간의 성과를 들어 보기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객관적 중요성 평가와는 관계없다.

1. 취락고고학

단위 조사면적의 확대라는 여건에 힘입어 종전에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취락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원삼국시대~백제에 이르는 취락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아산 갈매리(葛梅里) 유적은 곡교천변의 충적평야에 입지한 것으로서 하천변 저평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조사의 효시(嚆矢)라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유형의 유적이었으므로 조사 과정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고, 특히 유구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으나 교역(交易) 혹은 유통(流通)과 관련되는 것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이 유적 조사 이전에는 하천변 충적지에 대한 조사 예가 거의 없었던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유적의 조사 성과는 호서지역을 넘어 원삼국 이후의 취락고고학 진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이른바 ‘저습지’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세종시 대평리(大坪里)·나성리(羅城里) 등 대규모 취락유적을 확인 조사하는 성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고지형(古地形) 분석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고고환경연구소가 개발한 디지털 지형분석 장비의 보급은 한국고고학의 저평지 유적 검출(檢出) 능력을 획기적 높였고, 그 결과 새로운 유적 입지관념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중앙문화재연구원과 한국고고환경연구소가 분담해서 발굴조사한 나성리 유적은 최초의 백제 지방도시(地方都市)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취락고고학 분야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후 저평지 조사는 지속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면서 아산 북수리, 청주 오송 정중리, 청주 테크노

콤플렉스 유적 등의 발견 조사로 이어진다.

저평지 입지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그간 구릉지등에서 드러났던 수혈식이 아닌 굴립주 혹은 고상(高床)건물일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특히 세종 나성리의 추정 수장 거관(居館)의 구조는 일본의 야요이~고분시대의 고상건물과 비교될 수 있어 장차의 연구가 기대된다.

저평지 유적들은 단순 취락이 아니라 대체로 물자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출현은 원삼국시대 이후라는 점도 당시의 정치·사회적 통합의 전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넓은 간석지(干潟地)에 인접한 서산 잠흥리 일원의 도로부지 유적은 제염(製鹽) 등과의 관련성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구릉지에 위치한 원삼국시대 대규모의 취락의 전모도 알려지면서 취락간의 위계 관계를 위한 양호한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대전 용계동 유적은 3~4세기대의 환호취락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는 가장 많은 443기의 집자리와 토기 가마터 등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환호 취락은 서울 풍납토성 내부 환호취락을 비롯하여, 연기 응암리, 홍성 석택리, 순천 덕암동, 양산 평산리 등 삼한(三韓) 각지의 소국 중심지에 해당되는 취락으로 판단되고 있다. 용계동 취락은 대전지역의 원삼국시대 국(國)의 중심적인 취락으로 이해되지만, 인접한 곳에서 주구묘 등으로 구성된 묘역이 확인되지 않아 장차의 자료가 기대된다. 원삼국시대 중심 취락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홍성 석택리 유적에서는 환호취락 바로 인근에 묘역, 공방 등이 확인되었다.

한강이남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구려 유적은 대부분 분묘군이었는데, 세종시 남성골 산성과 대평리 주거지는 당시 고구려 군의 동향과 지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특히 대평리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구려 주거지는 당시의 역사상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2. 묘장(墓葬)고고학

정치·사회적 통합 및 지방으로의 재편 등은 각지에 분포한 분묘군의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각 소국의 국읍은 지금까지 읍면 혹은 시군의 소재지로 남아 있는 전통적 인구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당시의 취락 그 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분묘역의 확인을 통해 원삼국시대의 마한 세력의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각 묘역의 존속 기간이나 새로운 묘제의 출현 등으로써 마한~백제 시기의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산 탕정면 소재지인 명암리·용두리 일원에서는 2~4세기대의 원삼국시기 분묘 약 300기 가량으로 구성된 대규모 묘역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략 읍면 소재지등 전통 지역 중심지에서 10기 내외에서 수십기 정도가 발견되므로, 탕정면 소재지의 묘역의 규모와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마한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目支國)과 관련시켜 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청주 오송 생명산업단지 조성 부지에서는 정연한 묘역 배치 상태를 보여주는 주구묘군이 발견 조사되었는데, 이곳에서는 2세기 무렵 부여(夫餘)와 관련되는 동병철검(銅柄鐵劍)이 발견되어 원삼국시기 마한과 북방과의 관계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원삼국시대 분묘역에서는 진천 송두리를 필두로 대략 2세기 전반대의 영남지역 와질토기를 부장한 무덤에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아산 배방면 공수리 분묘역이 대표적인데, 목지국과 진변한 소국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기 용호리 주구묘군은 2000년대 초반에 그 일부가 조사되어 꺾수문(蕨首紋) 장식 철검 등 그간 영남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던 철기가 확인되어 주목을 끈 바 있다. 최근 동 고분군의 나머지 부분이 발굴되었는데, 전장 1.5m를 넘는 초대형 꺾수문 철모등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유형의 철기문화의 기원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산 예천리에서는 이 지역 주구묘에서는 처음으로 철단검이 출토되어 주목을 끈 바 있는데, 주구묘의 연대가 1세기대로 소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중요하다.

백제가 마한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원삼국시대의 묘역에는 변화가 확인되는데, 기본 묘역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지점에 묘역이 등장하는 경우, 원삼국의 묘역이 백제의 묘역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각지에서 확인된 분묘역은 당시의 백제의 지방지배가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파악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이다. 그러한 내용을 해당 지역의 묘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지역은 대략 4세기 중후반경에 이르러 천안 용원리(龍院里)·공주 수촌리(水村里) 등을 대표로 하는 지방 지배 거점이 출현하였다. 천안·아산 지역은 전술한 바처럼 마한연맹의 중심이었던 목지국 연고지이므로 거점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도 있다. 용원리 고분군에서는 중국 수입 도자기를 비롯한 백제 중앙의 위세품을 다수 부장한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에 앞선 원삼국 시기에는 결코 지역의 중심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국 시기의 중심지가 아닌 곳을 백제 중앙이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그를 통해 구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공주 수촌리 역시 백제 이전의 원삼국시대 분묘군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므로 천안 용원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새로운 지배 거점 육성과 관계가 깊다. 최근 세종시 조성 과정에서 확인된 송원리(松原里) 고분군 역시 그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특히 송원리 고분군을 분묘역으로 하던 당시 취락이 전술한 나성리 지방도시로 드러나면서 백제 한성기의 지방도시의 전모가 소상하게 밝힐 수 있었다.

한성기의 지방 지배 제도는 아직 담로제(檀魯制)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왕·후제(王·侯制)로 이해되고 있는데, 주로 토착 수장(首長)을 그 세력에 따라 ‘왕’이나 ‘후’로 임명해 일괄 지배를 맡기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성시기의 충청남도 지역은 이후 백제의 도성이 되는 곳을 포함한 다수의 지방 지배 거점으로 재편되었다. 서해안 지역의 중요 거점인 서산·태안 지역에는 5세기 전반 무렵 서산 부장리(富長里) 고분군으로 피장자로 대표되는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고, 내륙 교통로를 따라 가야지역으로 통하는 금산 지역도 거의 같은 시기에 수당리(水塘里) 고분군이 등장한다. 5세기 후반경에는 마침내 금강을 넘어 익산 입점리(笠店里) 고분군에서 금동관 및 중국 청자 등 위세품을 부장한 무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분묘에서 보이는 백제의 지방지배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유적이 저장유적이다. 흔히 저장공(貯藏孔) 혹은 저장혈(貯藏穴)로 부르는 유구는 대략 4~5세기를 중심으로 각지에 단독유적으로 존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당시 지방지배 진전 과정에 수반된 수취체제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라·가야 지역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백제 특유의 지방지배 방식으로 주목될 만하다.

3. 도성고고학

호서지역은 공주와 부여 등 백제의 도성으로서 지역 정체성이 강하다. 도성은 국가 단계 정치체의 중심 취락으로서 왕을 비롯한 지배집단과 도시적 주민의 집주지역이다. 도시의 방어와 위상을 나타내는 성벽을 구비하고, 주변에 왕릉을 비롯한 각급 계층의 분묘역 등이 주요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웅진과 사비도성의 소재지인 공주와 부여는 일찍부터 도성 관련 고고학조사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중요한 전기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걸친 사비도성 내외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나성(羅城)’으로 부르곤 하였던 외곽성(外郭城)의 평면 형태에 대한 재검토, 도성 내부 도시구획을 파악할 수 있는 도로망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사비도성은 도성 전체를 나성으로 방어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백제 도성과는 물론이고 당시 한반도 고대국가의 도성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성이다. 천도 이전의 사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미개발지였던 것으로서, 웅진이 가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모색 끝에 단행된 기획 천도였다. 천도에 수반되는 신도성 건설에는 많은 공역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이와 관련되는 조치들은 주로 무녕왕(武寧王)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의 고도 회복 과정에서 옛 백제민을 데려오거나 가야지역으로도 진출하여 영토확장과 더불어 백성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다. 사비도성 건설과정에 특히 한강유역의 옛 백제인들을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비도성 내부 최하층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사비양식(泗泚樣式)토기는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고고자료로 이해된다.

사비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은 부소산성(扶蘇山城)과 외곽성인 나성이다. 부소산성은 왕궁의 배후에 위치한 금원(禁苑) 혹은 친위대의 주둔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성은 도성의 도시적 성격의 증대와 더불어 다수의 도성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방호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도성의 경계선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사비도성은 왕궁을 방어하는 궁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최초로 등장한 내성외곽제 도성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고구려 장안성(長安城) 역시 왕궁이 위치한 내성과 외곽이 일체화된 유형에 해당되나 그 완성 시점이 593년이므로 사비도성보다 늦기 때문이다. 사비도성의 정확한 축조 시점은 문헌자료 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외곽이 가지는 방어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천도시점인 538년 이전에는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다. 사비도성의 나성은 도성의 사방을 모두 에워싼 것으로 이해된 적도 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고고자료 상으로는 백마강과 면한 서쪽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비도성 내부에는 현재까지 10여 개 지점에서 동서남북의 방위에 기준하여 구획된 것으로 보이는 도로망이 확인된다. 도로의 폭은 9m 전후와 5m 전후의 2등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소산성 남쪽의 추정왕궁지 일대에서는 그러한 도로에 의해 구획된 남북 약 113m, 동서 약 95m 가량 되는 토지구획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도성 내부 전체가 그러한 구획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토지 구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헌사료에 의하면 도성 내부는 5부로 나뉘고 각 부는 다시 5개의 향(巷)으로 세분되었다고 하므로 도로망은 그러한 구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도성 내부의 주요 시설로는 왕궁, 사원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왕궁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중심부 위치가 현재의 시가지와 중복되는 지점에 해당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 북단에 해당되는 관북리(官北里) 추정왕궁지 일대에서 정면 7칸 측면 4칸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됨으로써 당시 백제 왕궁을 구성하고 있던 전각(殿閣)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규모나 구조가 백제의 왕궁이 분명한 익산 왕궁(王宮)유적의 정전(正殿)이나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동시기 일본의 왕궁 정전과 동일한 점에서 사비도성 왕궁의 정전급 건물로 판단된다.

한편, 웅진도성은 그간 공산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왕궁에 걸맞는 규모와 위상을 구비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산성의 성벽 절개조사를 통해 그 축조기법이 부여의 외곽성이나 사비기의 산성 등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이 밝혀진 점은 백제 당시의 공산성의 평면 구조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고, 도로망과 함께 발견된 일련의 건물지는 장차 공산성의 성격을 특정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웅진도성의 왕궁지가 어디에 위치하였느냐는 문제는 아직 미해결이다.

도성의 분묘역에 대해서는 일찍이 송산리고분군이 왕릉역으로 비정된 이래 계층별 묘역의 분화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조사된 교촌리 전실묘의 양상은 그러한 묘역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지산유적의 성격을 둘러싸고 아직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왕이나 왕비의 빈전(殯殿)으로 보는 견해는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

사비도성의 외곽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청산성(靑山城)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차례 발굴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산성이라 여겼던 지점에서는 한성기 늦은 시기부터 점유된 흔적이 드러났으며, 외곽성 축조 이후에는 군사적 성격이 농후한 일련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도 확인하였다.

사비기 왕묘역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능산리 서고분군의 조사는 당시 왕릉의 입지 선택 및 봉토 등 외형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전통적인 음택(陰宅) 풍수상의 이른바 혈(穴)에 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특징이 분명하고, 묘실은 지하 깊은 곳에 두고 봉분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러한 입지 선택과

인위 봉분의 최소화는 ‘이산위릉(以山爲陵)’, 즉 산으로서 릉으로 삼는 산릉(山陵) 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역시 남조(南朝)를 통해 받아들인 장묘문화로 이해된다.

4. 불교고고학

백제의 불교문화는 한반도 고대 삼국 가운데 가장 융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가 처음 전해진 한성기의 불교유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웅진~사비기의 불교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는 풍부하다. 능산리사지 목탑지 출토 명문(銘文) 사리감(舍利龕)은 비록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나 567년의 기년(紀年) 사리장치로서 백제사상은 물론 동아시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왕흥사지 조사를 통해 577년의 기년 사리장치 일괄품이 고스란히 드러남으로써 백제 불교문화가 지니는 동아시아적 중요성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 밖에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적 있는 군수리사지가 재조사되어 구체적인 가람배치 확인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및 1980년대에 두 차례 조사된 바 있는 정림사지 재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졌던 가람배치와 다른 모습의 창건 가람배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공주 대통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성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간 “대통(大通)” 명 인각와의 출토지점 등으로서 그 존재를 추정하였을 뿐인 대통사의 존재는 물론 구체적인 위치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는 성과로 평가된다. 장차 대통사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남조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 이른 불교건축으로서 그 시기가 가장 이른 예를 확보할 수 있는 쾌거가 기대된다.

그 밖에 부여나 익산 등 당시의 도성 이외 지역에서 와당의 출토 사례가 알려진 바 있는데, 그러한 유적의 성격 파악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적이 최근 서천 중천면 농업용 저수지 확장 공사부지에서 확인되었다. 사비기의 토상(土礫) 기초의 건물지 1동과 토기, 기와, 금속기 등 생산시설이 함께 조사된 이 유적은 대체로 고려 시기 이후 불교사원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데, 그 창건 시점의 성격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서천 비인면의 항포구에서 부여로 통하는 지방도 상이어서 사비시기 주요 교통로와 관련된 시설이었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주목하여야 할 것이 부여에서 출토된 “북사(北舍)” 명 토기이다.

위진남북조 시기 사(舍) “사”는 “관(館)·역(驛)·점(店)” 등과 함께 중국 고대에서 여관을 지칭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그 기원은 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나라의 사는 국민이나 관리용의 “려사(廬舍)”와 일반상인용의 “여사(旅舍)”로 나뉜다. 춘추전국시기에 오면 “려사”는 “전사(傳舍)”가

되고, 여사는 “객사(客舍)”로 바뀐다. 전술한 위진남북조시대에 성행한 “객사”는 춘추전국시대 처음 출현한 것이다. 한대에 도시 내에 여관이 설치되는 새로운 양상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관용은 “전사”, 민용은 “알사”로 불린 것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북조의 경우 “객사”라는 명칭 이외에 “여사(旅舍)”라고도 하였다. 이렇듯 “사”를 관용이든 민용이든 여관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남북조시대에 처음으로 “여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음은 전술한 바지만, 수당(隋唐)이후에 들어 “사”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여관의 명칭 변천을 고려하면 백제의 “복사”는 당시 사비도성 내에 설치되었던 여관이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이고 그와 도로와 관련성, 운영 및 사용주체 등에 대해서는 장차 연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당시 객사의 존재는 분명하다. 종천리 유적은 백제 사비기의 객사일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지향

고고학은 인간행위의 산물인 일체의 물질적 자료를 통해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인간의 행위는 개체 특수적인 행위가 아닌 문화적 행위만이 그 대상이 된다. 문화(Culture)는 인간이 주변환경(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신체외적인 과정(Extrasomatic Process)을 통해 학습, 전달, 공유되는 행위, 관습, 지식, 사고, 가치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그 자체는 비가시적(非可視的) 실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행위는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수단을 동반하기 마련이므로 문화적 행위의 산물인 물질자료를 통해 비가시적 실체인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고고학의 학문적 목표 혹은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자료를 통한 문화의 복원이다. 전술하였듯이 문화 그 자체는 비가시적이며, 문화적 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만이 고고학자료로 남아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물질자료에 나타나는 정형성을 토대로 당초의 문화를 복원하는 일은 그 대상 시공을 불문하고 모든 고고학 연구의 제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그렇게 복원된 개별 문화들의 시공간적 궤적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흔히 문화에 대한 역사(Culture History)라 한다. 이는 20세기 전반까지 전 세계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던 것으로서 고고학의 후발자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문화들의 개별사(個別史)를 통해 얻어지는 문화변동 과정에 나타나는 보편적 定型性(Regularity)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는 각 개별 문화들의 시공간적 변천과정, 즉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 그 결과를 연문화적(連文化的)으로 비교해봄으로써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흔히 고고학 이론이라 부르는 것이 된다.

1. 문화복원

전술한 고고학의 학문목표들은 얼핏 보면 우리의 고고학조사 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물질자료인 고고학자료는 인간의 문화행위의 산물이라는 인식만 투철하여도 여러 현장 조사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유구에 대한 이른바 ‘성격’ 파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조사에서 단지 편린으로 남아 있는 유물이나 유구는 어떤 문화행위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천착조차 없이 의미 없는 형태 실측이나 재질 및 채원 기술만으로 대체될 뿐이었던 작금의 관행을 반성케 할 것이다. 발굴조사는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노출시킨 유물이나 유구의 관찰기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를 통해 현재는 비가시적인 인간의 문화행위를 복원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임을 몰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발굴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고고자료로 남아 있는 유물이나 유구가 어떤 부류 혹은 영역의 인간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위의 산물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되어야 한다.

2. 문화사에 기여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목표인 특정 문화의 시공간적 궤적 파악은 개별 발굴조사에서 다루기는 그 범위가 크고 실제로 단일 유적 조사 결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관련 고고학자료가 축적된 분야에서는 그러한 학문목표를 지향하여야 하며, 그것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중요한 목표라는 인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고고학에서 개별 ‘문화’를 고고학자료를 통해 설정 혹은 인식한 예가 극히 드물며, ‘문화’로 명명(命名)하기 위한 실제적인 학술과정에 대한 공통인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의 형태단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OO문화'가 서로 다른 수준의 개념이 착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의 신석기 문화'와 '빗살문토기문화'에서 '문화'의 개념은 같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고고학 형태단위에 대한 개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고학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정리 과정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자료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질서는 시간(Time), 공간(Space), 그리고 형태(Form)라는 3개의 차원을 축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자료에서 정형성(Pattern)을 인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고학자료의 형태분석과 관련하여 그 결과 얻어지는 고고학의 여러 형태단위들의 개념 및 그 인지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고학의 형태단위들에 대한 것이다. 고고학 형태단위들로는 '고고학적 문화(Archaeological Culture)', '類型(Assemblage)', '型式(Type)', '遺物個體(Artifact)', '屬性(Attribute)' 등이 있는데, 이들은 차례로 상하의 위계적인 관계에 있다.

고고학적 문화란 일정한 지리적 분포범위 내에서 여러 유형들에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정 유물형식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이는 동일한 인간 집단이 문화행위를 영위하면서 수반된 다양한 분야의 물질적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실제로 우리가 한 유적에서 채집한 고고학자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고고학적 문화의 부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들을 고고학적 문화의 部分文化(Subculture) 또는 부분문화들이라 할 수 있다.

유형이란 '유물조합'으로도 부르는데, 동일한 시간 범주에 드는 여러 유물형식들(An associated set of contemporary artifact-types)로 정의되는데, 동일한 인간집단이 특정 동시간대에 제작 사용하였던 여러 유물형식들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의 고고학적 문화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속하는 복수의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고고학 이론 지향

문화행위에 대한 복원을 바탕으로 개별 문화의 시간적 공간적 궤적, 즉 문화사를 재구성하였다면, 이제 서로 다른 문화의 시간적 공간적 궤적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특정 문화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 문화사가 가지는 보편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개별 유적 단위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나 적어도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목표 가운데 하나이므로

한국 고고학의 학문 목표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문화적인 비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정형성 혹은 보편성을 ‘고고학 이론’이라 한다. 사실, 우리 학계에서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을 고고학자료 생산 현장 및 보고서 내용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별도의 이론과 방법이 기성품으로 구비되어 있는 도구처럼 이해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고고학 이론이란 비가시적인 문화 및 문화행위와 그 산물 혹은 매개물로서 남아 고고학자료로 인식되는 물질자료 사이의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관계 설명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위 고고학 이론은 가설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으로서 계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이 누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문화에 속한 개별 유적 조사 결과 보고서는 기존의 관련 고고학 이론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검증 혹은 수정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인간과 역사 지향

고고학자료는 특정 인간(집단)이 공유하고 있던 ‘문화’라는 시나리오에 의한 행위(퍼포먼스)에 수반되었던 일종의 소품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대개는 당초의 상태와는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소품의 일부분 혹은 편린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행위 및 그것이 한 부분이었던 전체 시나리오를 복원하는 것이 고고학의 매우 중요한 일 단계 과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물질자료와 문화행위 및 그것이 포함된 특정 문화 전체를 연결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민족지적 유추(Ethnographic Analogy), 역사기록(Historical Record), 그리고 고고학이론이 그것이다.

고고학은 물질자료를 남긴 인간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문화행위와 물질자료 사이의 연관성 설정, 즉 설명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이 3가지 밖에 없다. 민족지적 유추는 물질문화가 유사한 인간집단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고고학자료를 해석하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선사고고학에 주로 활용된다.

역사기록은 역사시대 고고학자료 해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역사기록에 대한 엄정한 사료 비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부분의 경우 역사기록은 그 기록을 남긴 시점이나 사람(들)의 관심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고고학자료에 대한 해석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적어도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구축해볼 수는 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고고학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고고학에서 역사기록과 고고학자료를 연계 설명하는 것을 마치 고고학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별 문화의 궤적, 즉 문화사는 특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교를 통한 연문화적인 규칙성이 인지되어 어느 정도 보편성을 획득한 이론이더라도 그것이 설명해줄 수 있는 영역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고고학이론은 개별 문화의 고고학자료 해석에서는 최후로 적용하여야 할 준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근거는 연문화적으로 검증된 고고학이론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임은 두말할 필요 없으나, 고고학이론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지지(地誌)들에는 풍부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가령 각 지역의 특산물, 취락의 분포, 인구규모 등에 대한 기록은 비록 시기는 다르나 선사시대의 고고학자료 해석을 위한 역사민족지적 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민족지자료에 비해 적어도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자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